



나눔의 집 꿈틀도서관

#서울 성북구 #시설공사비 지원

꿈이 자라는 곳

꿈틀도서관의 이름은 꿈이 자라는 곳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됐습니다. 지역의 생명, 평화, 인권을 주제로 열린문고 활동을 하다가, 2007년 문고등록을 하면서 도서대출, 도서관 이용학생들과 주민들과 독서문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 어디야?”

“나 꿈틀!”

꿈틀도서관은 지역주민과 활동가의 친밀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다양성에 대하여 함께 논의를 진행하는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동네예술학교 ‘예술반상회’를 진행하며 지역의 의제를 찾는 시도도 해보았습니다. 나눔의집 꿈틀도서관은 지역주민도서관의 모습으로 차근차근 내용을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긴급지원119와 함께한 나눔의집 꿈틀도서관의 2017년은 어떠했나요?

생리적 욕구 해결의 난감함은 꿈틀도서관을 이용하면서 겪게 되는 커다란 불편사항이었습니다. 여러모로 열악했던 화장실은 이용자들도 볼 일이 너무 급하지 않으면 찾지 않는 기피의 공간이었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귀신의 집 체험을 하는 기분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긴급지원119사업으로 우리 도서관의 큰 고민거리를 해결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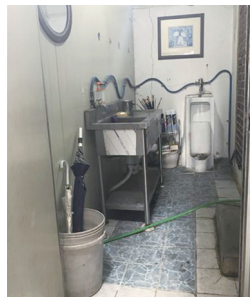
화장실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친구들은 무섭지 않을 거란 기대, 비맞지 않고 화장실에 갈 수 있을 거란 기대, 겨울에 얼지 않을 기대가 가득했답니다. 그렇게 기대를 안고 시작한 공사 과정에서는 공사 견적과 공사비용으로 세상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가능한 공사비용보다 높은 견적이 나오는지... 참 어려운 숙제를 받고 화장실공사와 비가림막공사까지 마쳤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마무리 조경, 페인트칠, 공사 후 청소 등을 하면서 도서관 식구잔치를 함께 했습니다. 화장실은 안락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하였고, 덕분에 아이들이 도서관 화장실을 좀 더 편히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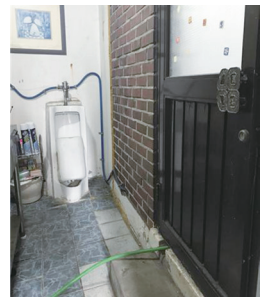
▲ 화장실 가는 길(공사 전)



▲ 화장실 가는 길(전장공사 후)



▲ 화장실(공사 전)



▲ 화장실(공사 후)



우리 아이들에게 쾌적한 환경 공간으로 바뀐 화장실이 요즘 좋습니다. 화장실 공사를 해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도서관 활동가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아이들도 좋아하고, 겨울에 언수를 녹이느라 물을 끓이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용하기에 불편했던 화장실을 이제 기억하지 못해요. 주민들은 이제 뒷마당에서 커피를 로스팅하고 있습니다. 모두 새로운 분위기로 바뀐 생활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나눔의집 꿈틀도서관의 2018년은 어떠한가요?

2017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 10명의 학생들과 연극놀이 수업도 했습니다. 자치구 공모사업을 모아 진행해 본 연극수업으로, 도서관 친구들의 1시간 공연에 초대되는 스승의 날과 같은 감동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12월 초에는 연극수업을 한 학생들과 가족들과 연극발표회를 했습니다. 훌륭한 무대였습니다. 저는 준비하는 과정이 더 감동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부모님의 이야기도 들었고, 도서관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운영진이 지역주민네트워크로 전환되는 변화를 실행해 볼까 합니다. 어느덧 꿈틀작은도서관이 10년을 넘기는 요즘, 많은 감정이 생깁니다. 한결같은 도서관으로 존재가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이 곳에서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하는 부담감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반면 이번 연극발표를 준비하면서 함께 준비해도 될 것 같은 안도감도 생겼습니다. 화장실 공사로 화장실을 개방하고, 뒷마당 공간 활용을 높이면서 지역도서관의 모습을 만드는 과정을 주민들과 함께 할 계획입니다.

